

## 선교는 삶이다.

-김 경 희-

책의 첫 장의 처음 문구가 내 마음에 강력하게 남았다.

**일기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 기록하는 것에 관심이 조금 있는 나로서,,, 5년 다이어리 형식으로 짧게라도 하루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일기를 쓰는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이지만 오늘 나의 작은 기록이 나 자신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니...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겪는 모든 일들과 그 속에서의 생각과 목상을 이렇게 많은 책으로 남겨 놓으셨나보다. 덕분에 TMTC를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는 나에게도 ‘기록’을 통해 감동과 도전을 주고 계시니 정말 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된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과 집안일을 하고 자녀의 뒤통다꺼리를 해야 하는 시간, 하지만 선교지에 나간 삶이라고 모든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다. 선교지 역시 삶의 현장이고 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 영 선교사님은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 역시 선교사의 삶의 일부분이며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질 것인데... **선교사에게 중요한 능력은 선교사의 삶의 일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마음대로 안되는 것들에 대해 불편함, 고생,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선교사인 것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결과로 쉽게 보여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보아스, 김룻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계획을 발표했던 시간에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선교에는 학교를 짓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마을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등의 눈에 보이는 선교가 머리 속에 전부였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한국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

은 전혀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다. 선교지라고 달라지겠는가. 그 곳의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눈에 아무 열매도 보이는 것도 없을 지도 모르겠다. 낯선 타국의 땅에서 문화의 어려움을 겪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지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책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선교사의 삶, 선교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라는 것이다. 선교지에서의 삶을 즐길 수 없다면 그 땅은 선교사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땅이 되지 못한다. 선교사는 결국 사역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땅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때문에 선교지에서 잘 쉬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기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지가 고난과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회복과 감사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대단한 삶, 인내하고 눈물의 시간이라고만 여겼는데 내가 사랑하는 땅에서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것 같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삶이 선교의 첫걸음이라 여기며 감사해야 겠다.

## 약함의 선교

책의 첫머리에 이 책의 제목이 왜 ‘약함의 선교’인지 잘 나타나 있다. **선교는 선교사의 열정과 강함이 아니라 낮아짐과 연약함을 배우는 시간이다.** “약함의 선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책은 19년이 지난 기도편지를 모아서 낸 책이다. 함께 후원하며 기도한 동역자들을 위해, 선교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다. 20년 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낯설기도 하지만 시대를 넘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선교사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책임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믿는 교사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와닿는 말이다.

에콰도르의 물 축제 문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축제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던지는 물벼락을 맞으면 나 역시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현지인들을 보며 속타는 마음도 너무 공감이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선교사님은 현지와 동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모습에 나도 고개가 숙여진다.

또 선교사의 삶이 누구도 자신의 일과 시간 활용을 점검하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넘어 방종이 되고 방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하며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바울의 고백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자동차가 필요한가? 에 대해 차량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와 반대로 차량 구입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세세하게 나열하여 기록하고 ‘차량’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의 낭비를 하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차량을 주실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 부분도 인상 깊었다. 선교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후원 요청을 하기 보다 이런 불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에게도 도전이 되었다 .

**에콰도르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는 것 같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나에게 복음이 왔던 것처럼... 하지만 선교지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맞지 않아 현지인들에게 겪는 어려움이 쌓이면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미워지고 증오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기에.. 에콰도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게 된다.

나 역시 지금은 교사 선교사로 이 땅을 살면서 ...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겠다.